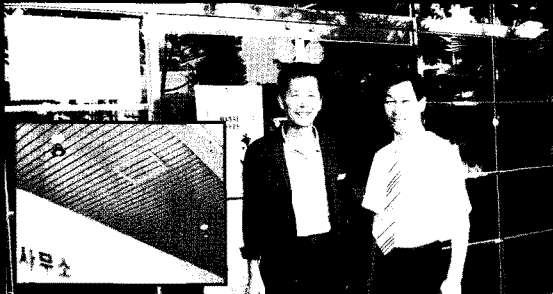


# LED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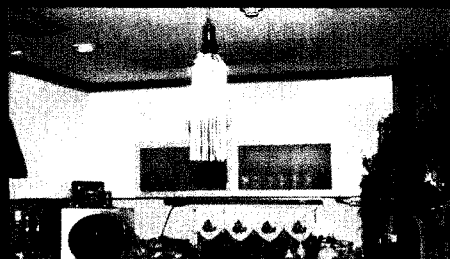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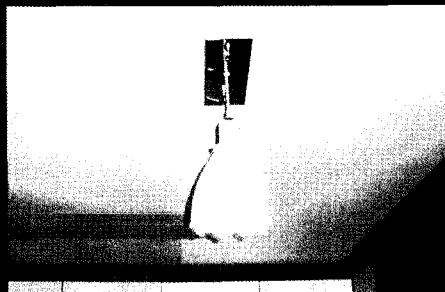
## 생활속으로...



광주광역시 진월동 하늘연가 박경오 관리소장(왼쪽)과 진성수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오른쪽)은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모범아파트로 조성 할 방침이라고 밝힘.



금광하늘연가 주민(강윤구 前관리이사, 구희근 관리소과장, 소현정 씨, 김영숙 씨, 이계녀 통장, 서주미 씨)과 녹색성장을 함께.....



식탁등 60W 3개짜리를 PAR35 LED 조명(왼쪽)으로 교체하였으며, 각 가정마다 특색있는 조명으로 변신 천정에 있는 할로겐도 LED 할로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입주인들이 직접 느끼고 있음.

LED 식탁 조명 교체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박춘수 의원 !

아파트 및 가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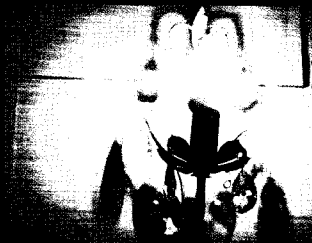
LED조명은 그동안 일부 제한된 영역을 밝혀주는 국부 조명에 사용돼 왔으나 친환경·초절전·IT와 연계된 조명 연출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조명 용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관공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가정 등 실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일반 조명을 급속히 대체해 가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금광하늘연가 아파트, 48평형과 60평형대 418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그림이 그려져 마치 갤러리에 온 분위기를 느낄수 있고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에는 음악이 흘러 나와 입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24시간 안전을 지키는 출동경비업체의 보호로 범죄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제설차를 보유하고 있어 겨울철 눈이 와도 아파트 인편이 말끔히 치워진다.

이러한 아파트가 올 해 들어 LED 조명이 보급되면서 더욱 명품 아파트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LED조명업체인 현대통신의 강윤구 광주지점장이 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이사로 활동하면서 입주민에 전기세 절감방안의 하나로 LED 조명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강지점장은 자신의 집에 LED조명을 직접 설치해 부녀 회원들에게 전기 에너지 절감효과를 직접 보여주며 설득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LED 조명등 교체작업은 이웃 집으로 하나둘씩 늘어 갔으며, 주민들의 LED 조명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욕실에 LED 센서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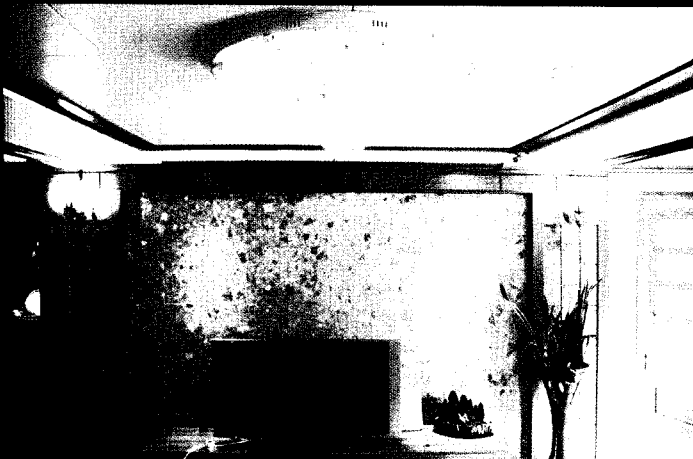
진열장에 설치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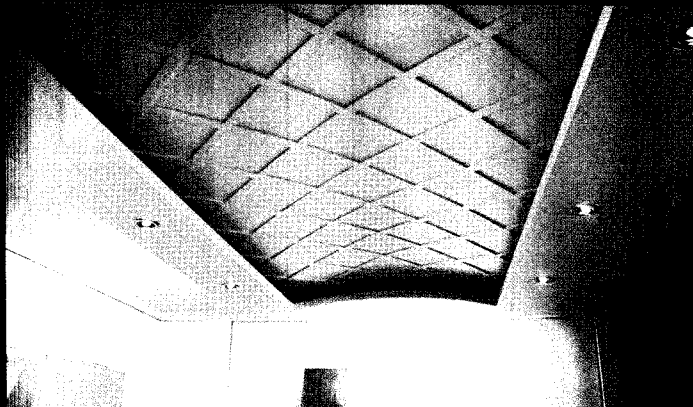
액자를 비추는 할로겐을 LED 할로겐으로 교체



진열장에 설치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거실등에 Blue LED 조명을 추가하여 은은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며, 할로겐과 벽면조명을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녹색 에너지 실현



부엌의 할로겐과 요리등을 LED 할로겐과 LED 리니어 바 타입으로 교체

이 아파트 거주하는 임채문씨(학원 운영) 집의 경우, 기존에는 식탁에 백열 전구 60와트(W)짜리 3개를 설치했으나 LED조명으로 변경해 전기세 절감 및 등기구 미사용으로 인한 자원재활용 및 원가 절감효과를 특특히 보고 있다.

임씨는 "시중가로 약 10만원 정도의 교체 비용으로 매우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서 "등기구에 먼지 부리기 위해 집안에서 사용하고 남은 레이스 천으로 LED조명을 장식해 한층 돋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희도씨(세무사)도 입주 당시 집안에 설치된 18개의 할로겐 전등을 지난 6월에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해 현재 30%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정씨는 "부녀회를 통해 LED로 조명을 교체할 경우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곧바로 교체하게 됐다"면서 "LED 조명으로 생활비도 절약하고 또 마음의 정서도 좋아지는 한편, 녹색성장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역시 LED조명으로 교체한 박양배씨(회사원)는 "입주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할로겐 전등을 50개 정도 설치해 초기에는 한달 전기세를 50만원 납부하다보니 부담돼 전등을 끄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집안이 어둡고 답답했으며 배선 열화 등으로 화재 불안감도 있었다"며 LED 조명 교체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비록 LED 조명 교체작업시 120만원이 들어가 부담스러웠으나 이제는 한달 전기세를 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면서 "LED 조명 교체로 월 10만원 짜리 전기저축예금이 든 기분인데다 화재 불안감에서 해방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했다.

같은 아파트 주민 박춘수씨(구의원)도 LED 조명 교체 이후 집안 살림이 알뜰해졌다고 소개했다. 평소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녹색에너지를 추진해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박씨는 "LED가 과연 얼마만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까?"하는 궁금증으로 집안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 뒤 한달 23만원의 전기세가 13만원으로 줄어든 자 몸소 LED 조명의 효과를 체험했다며 만족해하고 있다.

주부인 서주미씨는 LED 조명의 특성인 감성효과를 체험한 케이스, 현대통신 강지점장으로부터 LED는 자외선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서씨는 LED조명을 노을빛색으로 처리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정서함양과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LED 조명효과를 체험한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LED로 조명을 교체하는 세대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와 입주대표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박경오 관리소장은 "24시간 전등을 사용하는 구역에 현대통신 광주지점으로 부터 LED 조명과 전기절감기술을 이전받아 지난 5월부터 일부 설치해 전기절감효과와 조도, 품질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향후 LED 조명 교체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성수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공동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 9월 부터 지하주차장등, 계단센서등, 옥탑 경관조명등을 LED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대한민국에서 공동전기를 가장 적게 쓰고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모범아파트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2차례씩 현대통신광주지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산업진흥회, 캠퍼스 호남본부와 공동으로 에너지 절감 교육과 유괴방지 등 어린이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